



眞理 正義
自我 進就

濟大新新聞

발행인 金澤玉 주 간 鄭大然
편집국장 高榮哲 편집장 任尚繁
발행소: 제주대학교 신문사
(690-756) 제주시 아라동 산1면지
전화: (적) 54-2278·2279
인쇄: 한라일보사

제434호

(주간)

[1954년 5월 27일 창간 등록번호 249호]
[1986년 4월 28일 제3종 우편물(사)급인거]

The Che-dai Shinmun

1991년 11월 19일 화요일

1

‘특별법 저지투쟁 막판에 돌입’ 20일 동맹휴업 쫓기대회에 참가키로 총학, 민자당사점거·기말고사연기등 병행투쟁책도 마련

고 양용찬 열사의 분신 이후 집회와 시위가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민자당은 11월 20일 당무회의를 열어 제주특별법저지투쟁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이의 정국회의 회기안에 강행처리로 최종결정한 것으로 11월18일 알려진 한편, 오는 11월 20일 오후 2시에는 “제주특별법 특별법제정 반대 제3차 범도민 쫓기대회 및 고 양용찬 열사 정신승리대회”가 범도민회 주최로 탐동 매표지에서 열린다.

이에 따라 총학생회에서는 학과별로 동맹휴업을 실시, 각 단과별로 출석율을 갖는 등 범도민쫓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은 지난 11월18일 특별법 문제에 대한 대책회의를 연 결과 제3차 도민대회의 결과를 보면서 △특별법 결사저지 상경투쟁에 조직적 참여 △민자당사 점거 △기말고사 연기 등을 추진 할 것을 결의했다.

이에 앞서 제철협과 총학생회 주최하에 14, 15, 16일 3일간 특별법 제정반대를 위한 집회와 시위를 가졌다.

양용찬 열사 뜻 계승 특별법 저지 노태우정권 퇴진을 위한 청년아라살전대회”가 5백여명의 학우가 모인 가운데 민주광장에서 있었다.

이날 위정권 총학생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열사의 뜻을 기려 50만 도민과 함께 특별법 저지투쟁을 힘있게 벌여 나갈 것”을 호소했다.

또한 성토시간을 통해 고창현(축산 4)학우는 “집회 선전선동의 주제로 특별법 저지 선봉대 결성과 학생회를 특별법저지 대책위 형태로 전환해 전문화된 집행력을 행사하자”고 제안했다.

집회가 끝난 후 학우들은 광양, 나사리별 앞 돌문로 터미널 등에서 “열사의 뜻 이어받아 특별법을 저지하자”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7시10분경 터미널 앞의 민자당제주도지부앞 도로에서 규탄집회를 갖고 민자당도지부 현관을 때려 발로 밟아 부수버리기도 했다.

경찰은 이날 시내 곳곳에서 검문검색과 무차별 연행으로 시위과정에서 13명의 학우를 연행, 고창현(농화학 4)학우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인근 조사하는 한편 이들 연행자들은 15일 오후까지 모두 풀려

났다. 지난 11월15일에는 오후 5시 중앙성당에서 한석지(사회교육과)조교수, 김태석씨, 모갑경목사, 홍인택씨, 김창

남(무예4) 부총학생회장, 양동운(법도민회 집행위원장) 씨등 6명의 범도민회 공동대표가 ‘특별법결사저지’를 위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 지난 11월14일 “특별법 입법 강행하는 노태우정권 타도”를 외치며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는 민자당제주도 지부 현관을 때려 부수고 있다.

이중 김태석씨와 모갑경목사는 단식농성중 쓰러져 한국병원과 서울소재 병원에 각각 입원했다.

또한 ‘고 양용찬 열사 뜻 계승 특별법 저지 노태우정권 퇴진’을 위한 청년아라 살전대회’가 있었던 이날 학우들은 중앙로 가두진출 투쟁에서 실패하자 시민회관에서 최루탄을 쏘며 저지하는 경찰에 맞서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이날 계승대회에서 연행된 16명의 학우중 5명의 학우가 즉심 화물대 구류 2일씩을 선고받고 17일 풀려났다. 또한 지난 11월16일 오후 3시에는 ‘고 양용찬 열사 뜻 계승 특별법 저지 노태우정권 퇴진’을 위한 제철협 진군대회’가 중앙로에서 있었다.

중앙성당앞에서 출정식을 가진 3백여명의 학우들은 광양로터까지 평화행진을 갖고 미화물 꽃집 옆 도로에서 약식집회를 가졌다. 다른날과 달리 경찰의 감시집안이 없었던 이날 진군대회에서 집회를 마친 학우들은 동문로터까지 대도민홍보전을 벌이고 7시경 중앙성당에서 정리집회를 갖고 해산했다.

한편, 양용찬 열사의 분신과 도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자당이 노태우정의 확고한 입법외지에 의해 20일 당무회의에 제주도특별법특별법을 상정해 법제정방침을 강행키로 함에 따라 범도민회와 총학생회에서는 20일의 범도민 쫓기대회와 상경투쟁등을 통해 강력 대처키로 했다.

불우이웃돕기 기금마련 여직원회, 폐지팔아

우리학교 여직원회(회장 양연실 자연과학대 서무과)에서는 지난 4월경부터 각 행정부서에서 버려지고 있는 각종 폐지들을 모아다가 월말마다 제주재향군인회에 이를 처분해 이웃돕기 기금을 마련하고 있다.

여직원회 양연실회장은 “물자절약이라는 차원에서 그동안 버려져 왔던 폐지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며 “이렇게 해서 얻은 이익금이 아직은 10만원정도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100여명의 여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미전시 접수국 지원협정(WHNS)은 명목상 전시(남북분단대치라는 것 때문에)를 가산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전시와 평화시기를 구별할 것 없이 미국이 원하지만 한다면 거침없이 마 음대로 할 수 있는 협정인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를 미국의 신제국주의 정책에 따라 반영구적인 군사기지화와 대미종속국으로 만들려는 미국의 본질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미국의 압력에 더 이상 속 수무책으로 당할 수 만은 없다. 우리는 이러한 미국의 제국주의적 본질의 정체를 철저히 폭로하고 민족자존의 의식으로 우방임을 행해하는 미국의 가면을 민중앞에서 기어코 벗겨내야 할 것이다.

【繁】

교과과정 일부개편 어업·산업디자인·해양토목공학과정

교과과정위원회(위원장 고수)에서는 지난 11월7일 교무처장실에서 해양토목공학과, 어업학과, 산업디자인학과 등 3개학과와 전공교과과정 변경·편성에 대한 심의를 가졌다.

12명의 교과과정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교과과정위원회에서는 올해 첫 신입생을 받아들인 해양토목공학과에 ‘공업수학’ 등 16개의 전공필수교과목(총36학점), ‘연안해양학’ 등 44개의 전공선택교과목(총1백9학점)을 설치하기로 심의·확정했다.

또 어업학과는 내년 8월 신조설립심사위원회에 신청되는 것과 아울러 ‘94년부터 시행되는 운항사 자격취득에 필요한 교과목의 부재, 함해사 자격취득요건이 바뀜으로 인한 불편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전공필수였던 ‘승선실습 III IV’를 전공선택으로 변경처리 했으며 ‘90, 91학번들에게는 제외됐다

‘승선실습 IV’를 ‘92학번부터는 다시 이수토록’ 결정했다. 또한 타학과 인정전공선택교과목의 폭을 기존 9개교과목에서 5개 교과목(자동차역, 내연기관 I, 내연기관 II, 외연기관, 기초전자공학)이 추가, 14개 교과목으로 확대키로 했다.

산업디자인학과인 경우는 내년부터 세부전공(공업디자인, 공예디자인, 시각디자인)으로 나누어 신입생을 선발함에 따라 ‘실무디자인 II’에 16개의 전공필수 선택교과목을 새로이 신설했다. 또 지금까지 4학년 2학기에 개설됐던 전공필수교과목(산업디자인 II, 포장디자인 II, 제품개발 중 택1)은 학점제3조 2항에 명시된 조기졸업학칙에 위배됨에 따라 전공선택교과목으로 변경됐다.

우리학교의 교과과정개편은 4년을 주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현행 교과 과정에 변경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면 단과대학교수

회의를 거쳐, 교과과정위원회에 상정, 교과과정개편에 관한 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

‘여성문학상’ 입상작 발표 총학생회서

총학생회(회장 김보선 국교4)에서 지난 10월20일까지 현상공모한 제1회 ‘여성문학상’ 심사결과가 지난 11월4일 발표됐다.

여성에 대한 문제를 공유하고 여성해방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마련된 여성문학상의 입상내역은 다음과 같다.(각 부문 당선작 없음)

△시 부문가작:이순남(제주시 용담동)·=호선이(2편)
△소설 부문가작:김현진(경제2)·=출발, 고영배(기관공2)·=호르는 섬
△수필:입상작 없음.

직선 통해 학장선출

인문대학장에 고원희 교수
사범대학장에 박규은 교수



인문대학과 사범대학 학장이 지난 11월 15일 교수직선에 의해 각각 선출됐다. 인문대 세미나실에서 열린



인문대 학장선거는 53명의 교수가 참석해 교황선출 방식으로 실시됐는데, 35표를 얻은 고원희(국어독문학과)

해양과학심포지움 개최

오는 22일 ‘연안양식어업현황...주제로

‘제주도 연안의 양식어업 현황과 개발방향’이라는 주제의 제4회 해양과학심포지움이 해양연구소(소장 노홍길)에서 22일 오후 10시부터 11월22일 오전 10시까지 3층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런 심포지움에서 발표될 논문과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제주도 연안의 생물상에 관한 생태학적 연구-물레기류의 생식생태에 관하

여’=이영돈(해양연구소)전임장사. △‘제주도 연안해역의 해양수질 변동과 보존대책’=오상실(보전환경연구소).

△‘제주도 양식어업의 현황과 문제점’=고영배(양식협회). △‘남도의 성문화와 생식소발달’=이영돈(해양연구소)전임장사.

△‘어류사육환경에 따른 질병대책과 제반문제’=이창훈(제주수산연구소)

교수가 신입학장으로 선출됐다.

또한 같은 날 사범대학 학장선거에서는 박규은(과학교육과)교수가 40명의 참석교수 가운데 34표를 얻어 신입학장으로 선출됐다.

한편 이번 학장선출은 인문대의 신형철(사회학과)학장과 사범대 김수종(영어교육과)학장의 임기가 오는 12월10일만 만료됨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서 신입학장들은 오는 93년 12월10일까지 2년간 학장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신입학장의 약력을 보면 다음과 같다.

△고원희 인문대학장(사진) △58년. 한국외국어대학 불어불문학과 졸업 △79년교양과정부 교학과장 △81년 한국외국어대학 대학원 및 불문학 석사 △88년 발전기획위원회 위원 △90년 제주대학교 대학원사위위원 위임 △현재 프랑스 소르본느대학에서 박사과정 이수중.

△박규은 사범대학장(사진) △62년. 성균관대학교 문리대 물리학과 졸업 △69년 성균관대학교 문리대 핵물리학 이학석사 △86년 사범대학 학장직장.

본사의 사정으로 인해 이번에도 사설을 실지 못했에 대해 독자여러분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돌하르방

미국의 가면을 벗기자
더이상 당할수만 없다

제2차세계대전의 결과, 가장 특징적 현상으로 나타난 것은 경제력과 군사력이 미국에 집중되었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 미국의 주도권이 확립되고 패전국·승전국 모두가 미국에 대한 의존성이 심화되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미국은 전쟁을 거치면서 광공업생산이 2배 가까이 증대되었고, 자본주의세계의 공업생산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1937년의 42%에서 1946년에는 62%로 높아졌다. 또한 국제수지는 1940~45년 동안 약 3백억달러의 수출초과를 보였다. 미국은 전쟁직후 세계 총수출의 33%정도를 점유하고 있었고 해외투자는 전세계 해외투자의 75%선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지금 제2차세계대전 직후 군수관련산업의 고착화된 과잉

자본과 농업부문의 과잉생산 및 전시수요의 급격한 감소(독일·일본·일본이 있어서 민족해방운동의 고양은 평화공존·비동맹 중립주의 운동을 통해 냉전체제의 해체추진)등으로 인한 상황과 그에 따른 대량실업 발생이라는 위기에 있다.

이러한 경제난국을 미국은 여러가지 측면으로 우리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자국의 권위를 사용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식민지를 지배하거나 전쟁에 개입하고, 세계적 평화군축추진에 편승한 핵무기매기, 감축이라는 부분을 매꾸기 위하여 이념중에 양극화의 국방부장관이 정식 서명만 하게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한미 전시 접수국 지원협정’인 것이다.

이 협정이 체결된다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국본토나 일본의 오키나와 등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한반도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투입, 배치할 수 있도록 군사 및 병참지원을 제공하게끔 되어 있다. 즉 중국 어느 곳이나 군사도발을 내 주어야 함은 물론 함안시설 확보, 군용비행장 건설, 미군수용공공건물, 미군의 전용상수원 등 미국의 요구를 한국측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이 협정속에서 군

수지원협정, 탄약연대협정 등 4백여개가 넘는 기존의 불평등한 한미간 군사관계제반협정을 다 포함시켜 미국이 한반도에서의 지위를 영구·강화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상호 내정불간섭과 상호의존, 자국중심의 실리외교의 국제적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현정권은 민족의 피폐한-세금으로 미국의 국제영향력 강화에 선행적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미전시 접수국 지원협정(WHNS)은 명목상 전시(남북분단대치라는 것 때문에)를 가산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전시와 평화시기를 구별할 것 없이 미국이 원하지만 한다면 거침없이 마 음대로 할 수 있는 협정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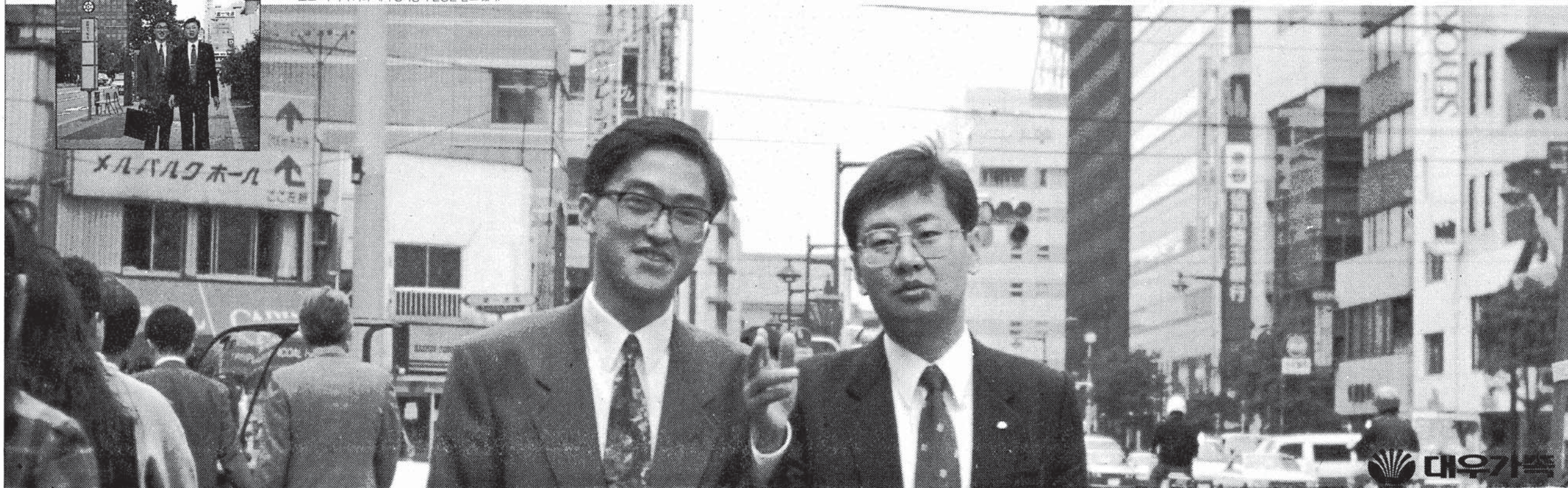
이는 우리나라를 미국의 신제국주의 정책에 따라 반영구적인 군사기지화와 대미종속국으로 만들려는 미국의 본질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미국의 압력에 더 이상 속 수무책으로 당할 수 만은 없다. 우리는 이러한 미국의 제국주의적 본질의 정체를 철저히 폭로하고 민족자존의 의식으로 우방임을 행해하는 미국의 가면을 민중앞에서 기어코 벗겨내야 할 것이다.

【繁】

“세계 속에 한국의 힘을 키워가는 뜻은...”

◀ 뒤로 일본 경제의 상징인 국제무역센터와 도쿄타워가 보인다.
▶ 대우저번 철강빌딩 창공과 과정과 인사원인 입사한 이영범군. 도쿄 “무의의 거리”에서 창공의 실명을 듣고 있다.



“선배님, 반갑습니다. 국제무대에서의 선배님 활약상은 서울에서도 익히 들었었지만 막상 와 보니 정말 굉장하네요. 신입사원으로서도 감히 업무도 못볼 만큼 바빠 돌아오고 있으니까요.”
“그럼 당연하지. 여기가 세계경제를 움직이는 중심부나 마찬가지 아닌가. 그런데 참, 금년 인턴사원으로 대우에 입사했잖아. 진심으로 축하해.”
“그래, 어려운 관문을 뚫고 대우인이 된 소감이 어떤가?”
“실습기간 동안 선적업무를 맡았는데 무엇 하나 쉬운 것이 없더군요. 일에 대한 정열과 희생의 가치관이 왜 필요한가를 피부로 많이 느끼기도 하구요. 역시 대우에 입사하길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외에서 일하다보면 더욱 그렇지.”
“다구나 일본같은 나라와 경쟁하는데는 대우 특유의 창조와 도전정신 없이는 힘들어.”
“우리는 이곳에서 단순한 수출을 넘어 삼각무역, 원자투자 등을

적극 추진하면서 당당한 국제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세계 64개국 84개 해외지사에서 선배님같은 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을 생각을 하면 세계 속의 대우가 아니라 세계가 곧 대우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열심히 배우고, 뛰면서 앞으로 선배님 못지않은 국제 세일즈맨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 자네와 같은 활기찬 후배사원을 만나게 돼서 마음 든든하네. 우리 함께 국제화의 길을 넓혀 보자구.”

오늘도 세계 속에 한국의 힘을 키워나가는 국제화의 주역들. 그리고 많은 바 바에서 최선을 다하는 많은 이들과 함께—

대우가 있습니다.



◇역학기 복학제

당국, 행정편의주의로 해석
제도 취지에 역행

탄력성있게 운용 학생에게 도움줘야

지난해 8월1일 우리학교 학칙개정안을 문교부가 수정없이 승인함에 따라 역학기 복학(한 학기 일찍 복학하거나 한 학기만 휴학하는 경우)에 대한 학칙이 새롭게 제정되었으나, 이를 포함한 개정학칙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역학기 복학에 대한 학우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우후죽순처럼 자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학칙 제20조의 역학기 복학에 대해 명시된 규정을 보면 '학점부족 등 교과이수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에 대해서는 휴학당시의 학기에 관계없이 역학기 복학을 허가'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당국에서는 학점부족의 경우에만 이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그 외의 학생들에게는 역학기 복학이 적용되지 않아 사실상 학생의 역학을 무시한 학칙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인문대학 사회학과 4학년 이상준학우는 "남학생은 군대를 갔다오다 보면 6개월 정도의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전제, "복학할 준비만 되어 있다면 학기에 관계없이 복학할 수 있도록 역학기 복학에 대한 적용범위를 넓힐 수 있는 학칙개정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또 공과대학 기공학과 3학년 양영태학우는 "군대를 제대하자마자 복학하다 보니 학교의 달린인 상환에 적응하기가 무척 힘들었다"고 복학당시의 심정을 얘기한 뒤, "학점부족 등 교과이수를 위해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만 역학기 복학을 가능하게 할 것이 아니라 복학생들이 복학준비기간을 갖는 등 효율적인 시간활용을 할 수 있도록 역학기 복학의 대상자를 확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우들 사이에서는 한 학기 일찍 복학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한 학기만 휴학하는 것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즉 부득이하게 휴학을 하게 될 경우라도 한 번 휴학하면 꼭 1년간 학업을 중단하게 하는 것보다는 휴학권이 원하면 한 학기뒤에라도 복학할 수 있게끔 학기단위로 휴·복학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육지부대학에서는 '총장의 허가를 받고 복학할 수 있다'는 복학규정을 만들어 우리학교의 역학기 복학보다 그 대상자를 훨씬 넓히고 있으며, 군복무로 인한 복학은 학기초 30일 이내에 복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학교에서는 학우들의 이같은 요구에 전혀 무반응이어서 학우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학교당국은 학우들의 이같은 요구를 적극 수용, 지금처럼 역학기 복학의 폭을 제한할 게 아니라 그 대상을 확대시켜 학생들이 조기졸업 또는 폭넓은 시간활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학교행정진 학생들의 학업과정에서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수정해 나가야 마땅하다. 학교행정자들은 학생들의 불편사항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적극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조】

◇대학종합발전 계획 시안 공청회 결과(2)

발전계획 전문위 소명의식 가져
단대별로 제시된 의견 과감히 여과시켜야

지난 8월17일 학사부문에 대한 우리학교 종합발전계획 시안이 발표된 데 이어 10월 18일에는 자연과학대 세미나실에서 이 시안에 대한 여론수렴 과정인 공청회를 연 바 있으나, 사안의 중대함과 달리 이 과정에서 교수들로 위촉된 학사부 전문위원들의 역할이 미미했던 것으로 지적돼 신중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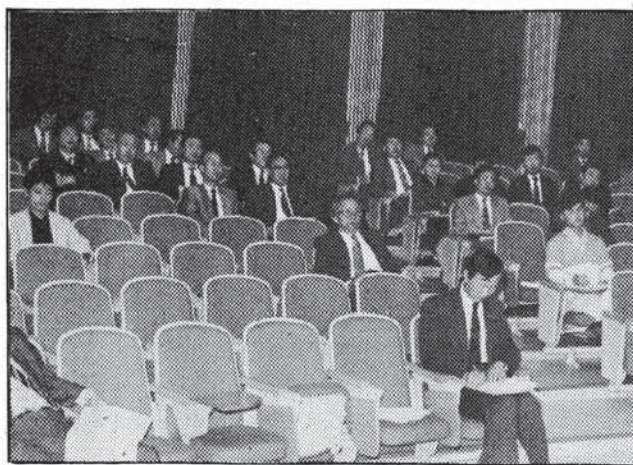
당초 학교당국에서는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천명한 후 인 91년 6월말에 학사부(8명)와 시설부(6명)에 각각 단과대별로 선임한 교수들을 수습해 분석했으며, 7월경에는 9개 전문분야로 학사계획 연구항목을 배정하는 절차를 거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사부와 전문위원들은 이대(6월말 9월말) 16차례의 전문위원회의를 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주위에서 분분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은 작성된 시안에 애초에 기획실에서 각 단과대별로 의견수렴을 받고나서 수립된 것들을 거의 여과없이 무원칙적·무소신적으로 반영하였다는 것

이다. 시안작성에 참여했던 한 전문위원은 "대부분이 기획실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전문위원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검토해 원고를 작성해서 시안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라면서 "공청회등을 통해 수렴된 여론을 보완·수정할 방침"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여론 수렴 절차였던, 지난 10월18일 자연과학대 세미나실에서 있었던 공청회에서는 겨우 1백50여명만이 참석했을 뿐만 아니라 의견제출 과정에 있어서도 5분 정도의 한정된 시간 때문에 충분한 의견전달이 어려웠다. 게다가 여러부서에서 다수의 의견이 개진된 것이 아니라 일부의 편견된 의견을 듣는 장이 되어버렸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주위에서는 공청회를 다시 열자는 여론들이 일고 있는데, 기획실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시안이 공청회를 거쳐서 다시 전문위원회의와 기획위원회의에서 재차 수정·보완 작업을 끝낸 후 학·처장회의와 평의회의의 심의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 그 관계자는 "아직 공청회를 열 계획은 미정이며, 11월말이나 돼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공청회 개최에 대



◇장기발전계획은 우리학교 미래가 걸린 중대사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18일의 공청회에 참석한 교수와 학생은 1백여명에 불과했다.

한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충남대인 경우 지난 89년 9월에 발전계획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대학발전의 기본방향에 대한 설문조사, 3차에 걸친 학내 공청회 개최, 공개토론회 개최, 학생 및 교직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발전계획을 잡아가기 시작하는 등 충분한 시간을 두어 여론수렴의 과정을 거쳤다.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여론수렴 과정이 부족했다는 사실과 더불어 전문위원들의 역할이 각 단과대에서 물러나

의견이나 자료를 수집한 것을 그대로 나열해 놓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 위치가 그야말로 형식적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실제 시안의 작성이라든가 책자발간에 있어서도 이러한 업무들을 기획실 자체내에서 거의 도맡아 처리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것은 전문위원들에 대한 불명확한 역할부여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기획실 규정의 제5항에 '전문위원회의를 기획실 업무의 원활성을 기하기 위해 보조

신임교수 채용 계획 확정

오는 29일까지 응모자 접수

학교당국은 92학년도에 30여 전공분야에 걸쳐 전임교수를 모집하기로 하고 지난 10월31일 채용공고를 냈다.

채용분야를 보면 △인문대:독어학, 철학, 일어학, 서양학, 중어학 △법정대:헌법학 △경상대:마케팅(소비행동), 인사관리(조직행위), 관광경제론 및 관광정보론 △국제경제학(국제금융 및 국제수지), △사범대:Shakespeare 및 원미회, 영미시 △농과대:농산물유통론, 식량경제학, 수의내과, 수의외과, 수의산과 △해양과:해양수괴학, 해양토목학, 발광학 △자연과학대:전자물리학 또는 원자물리학, 생화학, 물리학, 식품화학, 선형 System 설계, 위성통신, 정보이론 및 Pat-

tern인식, Algorithm설계와 분석, 신경회로망, 금속공예, 환경계획 등으로 각 분야에 약간의 명칭을 예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응모자는 이력서, 대학·대학원 학력 및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연구실적 목록, 연구실적 등을 오는 11월29일까지 교무과에 제출하는데 자격기준은 교육공무원 임용에 걸려서 자격이 없고 박사학위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한편, 현재 우리학교의 전임교수 확보현황을 보면 △89학년도 2백84명 △90학년도 2백94명 △91학년도 3백17명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법정정원(5백55명)에는 57%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으로 두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는 하나 역할 자체를 규정하는 구체적인 조항이 없으므로 해서 자연 그 위치가 불명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앞으로 예정된 추진계획상황을 보면 11월경 전문위원회의와 기획위원회의를 가진 후 학우회, 평의회의를 거쳐 교수회보고를 끝으로 12월말에 공표시행할 계획에 있다.

이번 장기발전계획은 10년간의 학교발전의 전반기에 관한 발전계획을 전적으로 달성해나갈 수 있는지의 문 제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이 일을 얼마나 성과있게 잘 처리해나갈지 따라 학교의 역량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로서도 작용하기 때문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매우 중요한 일이다.

시일을 두어 여러차례의 공개토론회나 공청회등을 통해 여론수렴을 하고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고치고 다듬는 수정·보완의 작업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컨대 어느 갑자기 그 타당성조차도 없이 유행가 락 뽕뽕 예술대학이나 의과대학을 설치하겠다는 발상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양은식기자】



교수동정

▲박태수(학생생활연구소) 상담지도부장=지난 11월16일 제주시교육청강당에서 열린 제26차 상임심리연구회 주최 '상담에서의 전이관계분석' 주제의 제2회 학술세미나에서 '상담에서의 전이관계 분석'에 관해 주제발표.

▲현학순(경영학과)교수=양영현(행정학과)조교수=지난 11월 15일 서귀포농협회의실에서 열린 서귀포시 발전동우회 주최 '지역발전을 위한 세미나'에서 주제발표.

▲이현중(측산학과)교수=11월19일부터 11월31일까지 일본 북해도대학과 공동으로 "마육(馬肉)에 관한 공동연구"를 실시한다.

▲김순선(농학과)교수=대한민국 학술진흥회 주최로 오는 11월21일부터 23일까지 학술원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생체 고분자 과학과 기술의 진보'라는 주제의 제19회 국제학술대회에 참석예정.

▲양성기(해양토목공학과)교수=오는 11월23일부터

12월17일까지 92학년도 대학입학학력고사 문제출제위원으로 위촉됨.

▲김양순(가정관리학과)교수=지난 11월15일과 16일 양일간 한국어린이유학회관에서 열린 제19차 한국아동학회 추계학술심포지움에 참석.

▲홍양자(식품영양학과)교수·교양수·양양한(수)·조교수·강정숙(수)·전일강사=지난 11월16일 서울 Intercontinental Hotel에서 열린 제26차 추계정기총회 및 학술대회에 참석.

학과소식

화공과 강길선학우 동상 '이동현상...경시대회'

▲화공학과 강길선(4)학우가 대한화학학회 주최로 지난 10월5일 서경대학교에서 열린 제2회 '이동현상 학력경시대회'이동현상 과목에서 동상을 수상했다.

일문과 학술·문화제 ▲일어일문학과 학생회(화

장 오연숙) 주최 '제1회 학술·문화제'가 지난 11월13일 인문대학 세미나실에서 있었다.

이번 학술·문화제에서는 '일본어 말하기(화문과)' '일본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전시(시사학과)' '시화전' 등 '올바른 교과과정 편성을 위하여'라는 주제의 세미나(학술부)가 있었다.

산디, 10명 입상

제4회 오리엔트공모전서 산디디자인학과 문경진(3)·김성윤(3)학우가 지난 10월 15일 오리엔트시계공업(주) 주최 '제4회 오리엔트시계 공모전'에서 작품 'WAVE'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 이번 공모전에는 산디디자인학과 학우들이 출품한 10개작품이 모두 입상했는데 입상자들은 다음과 같다.

▲clock(대상, 복시계)부문 △장려상 김태호(산디디자인 2)·노은영(2) △장려상 이윤정 △입선 고명숙(2) △"SPACE"

▲watch(손목시계)부문 △최우수상 문경진(3)·김성윤(3) △"WAVE" △우수상 김민정(4) △"NAME CARD WATCH", 유영규(2) △"KID" △장려상 이윤정(4) △정안숙(2) △"STONE(돌)" 고영복(2) △고은성(3) △"SWEAT(

땀)" △입선 김희선(3)·강경용(2) △"FREE" 김경호(2)·박선영(2) △"물방울" 김현정(3) △"ECOLOG-Y"

공연·전시

혼소리, 전열사추모 '내 죽음은...말라'

▲법정대 노래패 혼소리 전열사 추모 제2주년 기념, 11월 정기공연 '내 죽음은...말라' △일시=11월22일 오후2시 △장소=법정대 강당

초승동인 17회 '시화전' '결벽곡'의 21편 전시

▲초승문학동인 '제17회 시화전' △일시=11월21일부터 24일까지 △장소=아라리아 전시공간 △출품작='결벽곡'(현계철)의 21편.

극연, '30일간의 야유회' 24일부터 문예회관서

▲극예술연구회(회장 허성오 기관장) 창립 10주년 기념공연 '30일간의 야유회' △이근삼/작 김상봉/연출 한정민/기획 △일시=11월24일(오후 4

시30분) 25일·26일(오후 7시) △장소=문예회관 대극장

연합신세대 '문학한마당' ▲문학동아리 신세대(연합 회장 심유정 전기공 2)에서 창립 제2주년 기념으로 '문학한마당'을 개최한다.

△일시=11월27일부터 28일까지 △장소=YMC 3층강당 △행사내용=세미나(농민 문학에 관하여) 초청강연(연

김창현(정)·문필성(부)학우 20표차로 해대학생회장에 당선

지난 11월8일에 실시된 해양과학대 학생회장 선거결과 김창현(정) 후보가 2백89표 2백89표 같은 득표수를 기록함으로써 양후보측의 합의하에 지난 11월14일 재선거를 실시한 '92학년도 해양과학대 학생회 선거'에서 김창현(정) 후보가 20표차로 재선거를 승리했다.

다만 단과대보다 높은 투표율(92%)을 보인 가운데 재선거를 거쳐 '92학년도 해양과학대 학생회장'에 당선된 김창현 학우는 소감을 통해 "이번 선거에서

사 김정열 제주도 민생문제 해결과 문화

시작(북촌리 골프장 전개 싸움에 관하여)

'제3회 산업디자인전' 23일부터 문예회관서 ▲산업디자인학과 '제3회 산업디자인전' △일시=11월23일부터 27일까지 △장소=문예회관 전시실

학우들이 학생회에 대한 관심을 증명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관심들을 바탕으로 학우대중속에 학생회가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내년도 학생회사업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요일 영화 감상회 11월22일 "문스트리" 11월29일 차츰한 시리즈 제3탄 "시티라이트(City Light)" 12월6일 "오페라스트리" △일시=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장소=사범대 2층 여학원구소

第7回 全國大學生論文懸賞公募

신한은행은 1982년 7월 7일 순수민간자본으로 설립된 일반시중은행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며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사랑하는 은행으로서 젊은이의 꿈과 야망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신금융시대의 경쟁력 우위 확보를 다짐하는 저희 신한은행이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금년에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제7회 전국 대학생 논문현상공모를 실시합니다. 높은 학구열과 진리탐구의욕에 불타는 전국대학생 여러분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신한은행 개요

- 설립일: 1982. 7. 7.
- 은행장: 라웅찬
- 자본금: 5,160억원
- 총수입: 5,319,969억원 (1991. 10월말 현재)
- 영업점망: 국내 109개소 해외 7개소 (1991. 12월말 예상)

응모요강

1. 자격

- 응모마감일 (1992. 5. 30) 현재 전국의 대학교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2. 응모논제 (아래 논제중 택일)

- 1) 世界經濟의 Bloc化: 韓國의 對應戰略은?
- 2) 中小企業 轉業競爭力: 그 強化方案은?
- 3) 急變하는 金融環境속의 銀行: 앞으로의 進路는?
- 4) 教育制度, 어떻게 改革할 것인가? - 先進經濟社會를 指向하여 -
- 5) 技能人力 不足難: 教育訓練 制度의 改善方向은?

3. 응모마감일

- 1992. 5. 30(토) (우송시 당일차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4. 당선작발표

- 1992. 6. 30(화)
- 당선작 개별동지와 한국경제 및 매일경제신문에 공고

5. 상금

- 최우수작: 1편 이내 300만원
- 우수작: 2편 이내 각 150만원
- 佳作: 3편 이내 각 80만원
- 입선: 5편 이내 각 40만원

6. 응모요령

- 논문매수: 200자 원고지 70~80매 내외 (WORD PROCESSOR로 작성, 제출시 20~30매 내외)
- 7~8매 정도의 요약본 첨부 (WORD PROCESSOR로 작성, 제출시 2~3매 내외)
- 제출처: 당행 본점 종합기획부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120) 및 지방지점 지점

7. 특전

- 최우수작 및 우수작 입상자는 당행 입행지원서 평가시험 면제 특전 부여. (단, 당행 제반 채용요건을 구비한 자에 한함)

8. 기타

- 응모작 제출시 한문 성함 및 연락처를 명기하고 본인 재학증명서 1통을 첨부할 것.
- 접수된 논문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당선작의 저작권은 당행소유임.
- 학교명이 인쇄된 원고지는 사용하지 말 것.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행 본점 종합기획부로 문의할 것. (전화번호: 756-0505 교환 3040, 3041)

새싹의 꿈 키우는 보림
신한은행

매킨토시는 광화문 사거리로
애플매킨토시 LC30% 할인판매

3,289,600원 → 2,300,000원 (부가세포함가격)

—칼라그래픽과 성능의 동시만족—
매킨토시 LC

- 매킨토시 보급형 칼라시스템 구성
- 한글 Talk Multi-Tasking, Multi-Window 지원, 한글(12가지), 한자(4가지) 서체 및 특수기호 제공
- 하이퍼카드(종합정보 관리시스템) 제공
- 마우스(Mouse) 제공
- 사운드 입·출력기능 내장
- 마이크로폰(음성입력장치) 제공
- LAN Card 내장
- 나이스스(한글, 한자, 그래픽 워드프로세서) 제공
- Elex BBS(전자서신/통신 Package) 제공
- 칼라모니터(기본 256칼라 제공 포함)
- 32Bit 68020CPU 사용
- 2MB 메모리 사용
- 40MB HDD.
- 144MB SUPER FDD 포함

●Personal Laser Writer LS

개인 사용자들에게 가장 활용성이 높은 300DPI의 레이저 프린트로서 다양한 한글, 한자 서체와 함께 그래픽 표현이 뛰어나다.

1,550,000원(부가세·별도)

엘렉스컴퓨터전문대리점
필로그림퓨터

서울시 중구 남문로 1가 135-2
TEL. 737-9999 / 8888 FAX. 732-0595

사은품 증정

1. CURTIS사 마우스패드
2. 멀티콘서트
3. 3MDiskette

□ '학원안정화대책'의 본질과 대응방안

정권준립에 대한 위기의식의 표출

학생회활동 등을 위축시키려는 각종 음모 대응책 마련 시급

강 진
영어교육과

1. 들어가는 말

노태우정권에 의해 고 강경대 열사에 대한 폭력적 살인이 자행된 후 4천만 민중의 반민중적 정권에 대한 분노는 전국 곳곳에서 거세어지기 시작했다. 5~6월로 계속 이어지는 전국민적 항쟁과 계속되는 열사의 분신, 그리고 고 김규경 열사의 죽음 앞에서 노태우 정권은 막다른 골목에 서있는 정권의 존립을 유지시키고 민족민주세력을 탄압할 구실을 찾기 위해 급급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노태우정권은 기습적 유세대행 사건을 날조하여 전제 민주주의운동세력의 도덕성을 공격하며 국민대중과의 분리를 유도하였으며 특히 반혁명운동의 선봉대적 역할을 부여하여 전 투쟁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참여하며 주동적 역할을 하고 있는 전대협과 청년학생에 대해서는 6월 초 외대학우들의 정권식탈리에 대한 응징투쟁을 빌미삼아 학원안정화 대책이라는 허울좋은 내용을 발표하여 대대적인 탄압의 칼을 세웠다.

이처럼 학원자치의 토대를 근저에서부터 허물어뜨리려는 노태우정권의 계획된 의도에 의해 학원안정화대책이 발표되고 구체화되어 가고 있으며 또한 급변하는 소련의 정세를 이용, 민족민주세력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공세 역시 한층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이에 대한 올바른 고민과 지혜를 발휘할 것을 요구한다.

이제 92~93년 대변혁기를 목전에 두고 독재정권의 연명을 막고 민주정부를 수립해야 할 절박에서 다시 한번 우리 청년학생들의 터전 학원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인 학원안정화대책의 본질을 살펴보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모색해볼까 할 것이다.

2. 학원안정화 대책의 본질

우리는 학생회라는 조직이 어떻게 건설되고 성장발전하였는가를 잘 알고 있다. 독재정권이 학원 곳곳을 누비며 학원을 지배하던 시절부터 청년학생의 자주적 지향을 하나로 모아내고 학생회를 합법화시키려는 투쟁 속에서 지금의 학생회는 있을 수 있었다.

이처럼 학생회가 선배들의 피와 땀으로 건설된 이후 학우대중의 자주적 단결에 기초한 자주민주통일에 대한 지향은 더욱 확산되었으며 이는 곧 미국과 노태우정권에는 가장 큰 걸림돌로 등장하였다. 이 속에서 학원안정화대책은 학원에 대한 제도적 탄압을 학교당국으로 떠넘기고 교수-학생-직원 사이의 분열을 기본으로 하여 학생회를 왜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도록 하자.

87년 이후 학원에서의 자율권의 확보와 각 대학에서의 학내구정원에 의한 학사운영으로 협의체나 자치기구들의 지위와 역할은 증대되어 갔고 학내민주연합의 중요성과 학원자치의 필요성은 광범위하게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는 교육부의 학원에 대한 통제와 약화를 가져왔으며 미국과 노태우정권은 정권준립의 위기의식을 느끼고 학원에 대한 통제력 강화를 꾀할 수 밖에 없었다. 그들의 선진적 과제는 학내민주연합의 왜해였으며 이를 위해 학내분열을 조장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교권수호라는 미명 아래 교수들을 옹호하며 교수-학생간의 대립을 형성 불신분조를 조장하며 학내민주연합의 약화 및 분열을 유도하고 있으며 학생회의 역할이 아직 미숙한 곳을 중심으로 학원안정화대책의 구체적 내용을 실현시켜 학생회를 무력화 시키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학우들과 일상적으로 결합하고 있는 주변단체들을 왜해하여 학우들과의 분열을 조장하고 학생회를 고립시키려 할 것이다. 교지·신문사의 편집권 강화, 학생들의 수익사업 금지, 사소한 문제의 도덕적 매도를 통해 국민대중과 학우들과의 격리를 기본으로 학생회의 대중적 기반을 허물어뜨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학원안정화대책이 우리들의 학원에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관해 알아보자. 첫째로는 학사경고, 제적제처분 등의 학칙개정이다.

고려대, 숭실대, 삼지대 등 30여 개의 대학이 학사경고제와 제적을 중시내용으로 하는 학칙을 마련하여 교육부에 승인을 요청하였고 약 20여개의 대학이 학칙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또한 학칙에 대한 엄격한 적용이 예상되며 숭실대 등 일부 대학에서는 미등록 대변혁기를 안정적 권력재창출의 기회로서 삼기 위한 탄압의 하나인 것이다.

이제 92~93년 대변혁기를 맞이하여 자체여당을 보존, 강화시키면서 여타의 투쟁을 벌여나갈 시기에서 바로 생활의 터전인 학원에서 학우들의 생활적 요구와 자주적 지향을 기본으로 하여 투쟁을 해 나가야 한다. 즉, 학원내에서 교육환경, 교육의 질의문제, 교육재정확보의 문제 그리고 이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틀의 마련 등 학우들의 생활적 요구를 중심으로 하여 학우를 스스로가 주체로서 나아가는 공간으로서의 학원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들에서는 다음의 두가지를 통해 우리들의 대응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첫째, 교육부에 의해 자행되는 일방적 학칙개정을 공동연대투쟁으로 저지시켜 나가는 것이다. 교육부에서 자행하는 학칙개정 등 학원안정화대책의 근간인 학원에서 직접적인 중심이 되고 있는 학생회활동을 위축시키겠다는 음모로서 87년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가려는 것이다.



△학원안정화대책은 학원에 대한 제도적 탄압을 학교당국으로 떠넘기고 교수-학생-직원 사이의 분열을 기본으로 하여 학생회를 왜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보하였고, 일부대학에서도 선전물에 대한 첩거가 진행되고 있으며 심지어 학생회 사무실에 대한 출입통제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밖에도 간부장학금 지급규제 강화, 교지와 신문사의 편집권 침해, 그리고 학생들의 학사참여 배제와 총학장 선출에 있어 학생참여의 배제 등 학원안정화대책의 구체적 내용이 우리들의 학원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미국과 노태우정권의 지배구도가 학원에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3.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학원안정화대책 음모는 단순하게 학생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이는 앞서도 말했듯이 92~93년 대변혁기를 두고 민족민주세력의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는 지금, 대변혁기를 안정적 권력재창출의 기회로서 삼기 위한 탄압의 하나인 것이다.

이제 92~93년 대변혁기를 맞이하여 자체여당을 보존, 강화시키면서 여타의 투쟁을 벌여나갈 시기에서 바로 생활의 터전인 학원에서 학우들의 생활적 요구와 자주적 지향을 기본으로 하여 투쟁을 해 나가야 한다. 즉, 학원내에서 교육환경, 교육의 질의문제, 교육재정확보의 문제 그리고 이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틀의 마련 등 학우들의 생활적 요구를 중심으로 하여 학우를 스스로가 주체로서 나아가는 공간으로서의 학원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들에서는 다음의 두가지를 통해 우리들의 대응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첫째, 교육부에 의해 자행되는 일방적 학칙개정을 공동연대투쟁으로 저지시켜 나가는 것이다. 교육부에서 자행하는 학칙개정 등 학원안정화대책의 근간인 학원에서 직접적인 중심이 되고 있는 학생회활동을 위축시키겠다는 음모로서 87년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가려는 것이다.

□ 각 자치기구장 선거 총평

천편일률 비현실적 공약 여전

학교발전 및 학우권익 옹호에도 역점뒤야

'92학년도 학생자치기구 회장단 선거가 7개 자치기구가 단원입후보에 의한 무투표 당선, 6개 단과대학이 경선을 치른 가운데 지난 11월14일 해양과학대의 재선거를 마지막으로 모두 끝났다.

전체 13개 학생자치기구 중앙간담회와 학생회를 제외한 거의 모든 자치기구 회장단에 운동권 학우들이 당선돼, '92년도에도 제2주 개발투쟁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선거는 중앙자치기구인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동아리연합회, 총대의원회를 비롯하여 공과대, 자연과학대, 사범대 등이 무투표로 당선, 특히 중앙자치기구가 모두 무투표 당선되는 전례없는 기록을 남겼다.

이같이 무투표 당선에 따라 비교적 조용히 끝날 것으로 예상됐던 이번 선거는 3개조의 후보자가 출마한 농과대의 경우 91.8%라는 높은 투표율을 보였고, 해양과학대는 두 후보가 똑같은 수의 득표를 해 재선거를 실시하는 등 의외로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이제 모두 마무리된 '92년도 각 자치기구 학생회장 선거를 보면서 이번 선거에 나타난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우리 대학 선거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보아야 할 때이다.

해마다 선거때에 꼬박꼬박 지적돼왔던 예외없이 되풀이되는 공약의 비현실성과 비실현성 문제를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공약은 직접민주주의 방식에 의거하지 않는 대의제적 민주주의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등장하는 의사전달, 의견수렴의 한 형태이다. 7천여명의 학우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들의 이해와 요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세 나으려는 공약은 허황되고 공허한 구호일 수밖에 없다.

총학생회 공약사항만 보더라도 제7대 통일단결 총학생회가 내걸었던 공약사항과 별반 달라진 게 없다. 학생회 감

사사업, 학원자치와 투쟁, 지역문제 및 정치투쟁을 주 골자로 한 총학생회와 차기 총학생회 공약의 차이는 조금 구체화된 형태라는 것 뿐이다. 그래서 현 총학생회의 계승적 역할만을 수행하겠다는 듯한 인상을 풍기기도 한다.

또한 각 단과대학의 공약 사항들도 각 단과의 특성에 맞는 사항이 없고 대동소이하다.

학우들의 관심보다는 노선적인 접근을 우선시하거나 지난해의 공약들을 우려먹는 식이 되고 있다. 미리 많은 학우대중을 만나는 가운데 실제로 그들이 일기동안 얻어낼 수 있는 현실성 있는 공약을 내세우고자 하는 인식이 부족하다.

특히 기성 정치권의 선거판을 방불케 할 정도로 당선된 후의 허황된 공약은 대학 선거에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문제이다.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어느 단과대의 경우 선거공약으로 '제2주 개발 특별반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선거전막막에 그런내용의 현수막까지 내걸었으면서도 모단체에서 특별반 지지 투쟁기금을 모금하기 위해 선거전막막에 돌러 도망을 쳤다. "우리는 그런것과 상관없다"는 식의 말을 했다고 하니 내걸기 위한 공약의 한 단면을 보여준 것이기도 하거나 대학인의 자질마저도 의심케 한다.

둘째로 선거와 관련해 '무절제한'을 쓴다는 홍보유인을 등 선거운동에 관한 문제이다. 아침마다 후보자들의 인사와 선동투가 선거 1주일 정도 전부터 온통 학교를 떠돌아다니게 만든다. 1교시 강의라도 있으면 그 소리가 강의에 방해 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한다.

심지어 어느 단과의 후보자는 선심공세를 위해 학우들에게 저녁식사를 대접하고 도일주여행도 시켜줬다는 얘기도 나오는 것을 보면 정말 낮 뜨거울 지경이다.

각 후보자들은 주로 시내 여관방 또는 자취방 등을 빌려 선거사무소로 쓰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느 단대에서는 노선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공정성을 지켜야 할 학생자치기구 사무실이 공공연히 특정후보 선거대책 사무실로 사용돼 문제가 되기도 했다.

선거운동의 공정성 문제와 관련하여 비록 단과대학 선거였지만 기존 학생회간부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동에 개입해 반칙을 사기도 했다.

그러나 법정대에서는 정책설명서 이외에 학우들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힌 유인물을 배포해 학우들의 관심을 유달리 하기도 했다.

셋째, 올해는 안기부에서 사회주의권 변화등 새로운 국제정세를 이용 비정치성을 지향하는 이른바 '비운동권 후보'를 후원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았다. 그런 것에 비춰 '민자당'의 돈을 먹었다는 의심의 말로 비방 대상이 됐던 경상대와 농과대의 특정후보들은 반박 대자보를 붙이기도 했다.

아무리 후보자들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선거 공간이라도 허다하도 노선적인 차이나 비운동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비방하는 것은 자제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마지막으로 선거기간은 대중투쟁의 장으로써 현시기 정치적 사안과 지역문제들을 공유하고 학우들에게 선전해 낼 수 있어야 하는 데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후보자들이 좀 소홀하지 않았느냐는 평가도 일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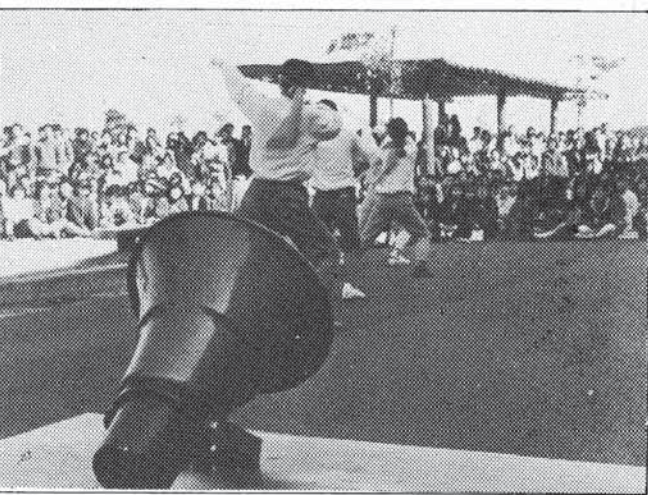
이번 선거의 경우 지난 11월7일 고 양용찬 열사의 분신 치적 사건과 지역문제들을 공유하고 학우들에게 선전해 낼 수 있어야 하는 데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후보자들이 좀 소홀하지 않았느냐는 평가도 일고있다.

이후 다시 선거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힘들거니와 특별법 제정투쟁은 당분간 지속적으론 벌어져야 하며 앞으로 다른 사안들이 대두될 때 법도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유세회 무기한 연기보다는 유세를 통한 인원 동원으로 특별법 문제를 더욱 크게 부각시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선거는 한해동안 학우들의 학내·외적인 요구를 수렴하고 이를 지도·실현해 나갈 일꾼을 선출하는 신성하고 중대한 일이다. 따라서 후보자들의 공약사항은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어야 하고 당선자는 학우들의 의견인 그 공약을 실천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이다.

선거에 있어 기성정치권에 비해 학생선거가 가지는 강점은 '높은 정치성과 더 높은 도덕성'이라고 한다. 이제 우리는 이점을 망심하여 기성제도권 부패된 선거방식을 과감히 탈피하여 대학내에 올바른 민주적인 선거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김미진기자]



△대학선거는 '높은 정치성과 더 높은 도덕성'이라는 강점을 잘 살려야 한다.

날로 새로워지는 농협제출장소... 내일을 위해 뛰고 있습니다.

“지점승격의 디딤돌을 여러분이 직접 쌓아주십시오”

농협이용 저축증대... 지점승격 앞당기자!!

지점 승격에 50억이라...

이렇게 하면 금방 이루어진다!!

*우리 모두 한통장 갖기 운동

한푼 두푼 저축하여 농협출장소 도와주자!!

*한통장 '천원'이상 저축하기...

「천원」이든 「천만원」, 「만원」이든 「일억」이요,

「십만원」이든... 몇억되죠?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될까요?

부모님, 형, 누나, 삼촌, 이모, 교수님까지도 부탁해야지

(1991. 11. 19. 화. 아침에 비음)

누구는 고향을 잊었다고 말한다. 노래에는 타향도 정든 고향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 사무친 말 안쪽에는 고향을 갈망하는 그리움과 한이 스며있음을 안다.

내게 있어서 고향은 마음의 구심점이고, 부도덕하게 흔들리는 내 삶을 포용하여 젖어주는 생명의 샘 같은 것이다.

그러한 고향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우리들의 고향은 지금 가난에 떨고 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진정한 고향을 가진 마지막 세대인지도 모른다.

비록 가난하지만 그리운 내 고향을 위해 오늘도 나는 내 작은 농협통장속에 그리움의 저축을 한다.

-어느 고향생의 일기-

알찬 지식과 높은 이상을 갖고 닭을 대학생할 농협출장소가 여러분의 대학생들과 함께 합니다.

저축상품안내

일시목돈마련에 최고저축수단(고금리, 비과세)

근로자장기저축 30만원~50만원으로 가입 한도 인상!

■가입대상: 일용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교직원

■특 징: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이 전액면제(21.5%→0%)

50만원범위내에서 분할가입가능.

결혼, 퇴직, 자녀진학자금, 경조사에 대비.

■50만원가입시 3년후면 21,468,750원 됩니다

5년후면 39,912,500원

세금감면으로 고수의 보장되는

세금우대저축 800만원~1,200만원 한:도액 인상!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5인가족인 경우 6,000만원까지 가능

■대상예금종류 기간(예치계좌) 이 율 세금 우대 내용

정 기 예 금 12.24.36개월 10%, 12%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정 기 적 금 12.24.36개월 10% 대폭감면(21.5%→0%)

가계우대정기적금 36개월 13% 계약해제 시에도(1년이상)해액

■전자저축기관을 통하여 1인1통장만 개설가능합니다.

농협창립 30주년기념 저축상품

一石三鳥 예금 예금하나로 3가지 효과!

■수익성, 보장성, 편리성을 갖춘 선진국형 복합금융 상품

■최고의 수익률보장, 37개월기준 44.22%(월14.34%)

컴퓨터마련에 유리한

꿈나무적금 유명메이커의 컴퓨터회사와 제휴!

■대 상: 실명의 개인 ■가입금액: 월10,000원 이상

■계약기간: 12~36개월 ■컴퓨터가입자금 대출

취급업무

■은행업무: 모든 예금, 적금, B-C카드, 카드론, 환업무, 온라인 송금, 타은행 송금

■공제(보험)사업 ■지도사업 ■장학사업 ■국고, 지로, 각종공 과금수납

■농협특색 저축상품: 내고향 적금, 꿈나무 적금, 이자로 보험예 금, 해마다 여행적금, 하나로 종합통장

■내고향 특산물 주문판매: 전국 온라인망을 통하여 생산농민과 소비자를 연결, 고향의 "참맛"을 어딘든지 배달...

■내고향 새농촌 가꾸기 운동 전개

■전국 최대의 온라인 점포망(5백여 점포)이 설치되어 고객여러 분이 어느 지방에서든지 편리하게 이용 가능

■수입인기 무인판매대 설치운영(제증명발급기)

■금융 편의제고를 위해 현금자동지출기(2대), 단말기(4대)증설

■농협 "신간도서 안내코너" 설치 운영

현금카드 소지는 신용사회를 상징합니다.

학생여러분이 꼭 필요한 현금카드 발급개시!

“마음은 농촌 저축은 농협”

농협중앙회 제주대학교출장소 직원일동

☎ 56-1119(54-2381)



쌀 한되가 커피 한잔 값에 불과 땀흘린 만큼 추곡수매가 보장돼야

우리는 매일 쌀을 먹고 살고 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쌀이 비싸다고 생각해 본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가 먹는 쌀은 농민이 피땀 흘려 농사를 지은 대가로 나온 것이다. 우리가 별로 생각없이 먹는 쌀에 대해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아닌가? 우리가 대학에 다니면서 학교식당에서 밥을 사 먹고 있지만 쌀에 대해서 무심코 넘겨 버릴 때가 많다. 우리가 오고가며 무심코 자동판매기에서 백원짜리 동전 1개를 넣고 뽑아먹는 커피 한잔이 한끼 쌀값이 곱한 통닭 값밖에 안되고, 쌀 한되 값이 커피 한잔 값밖에 안되니, 농민은 누구를 믿고 살라는 소리지.

농사를 지으란 소리지, 아니면 농사를 짓지 말라는 소리지 한심스럽기만 하다. 정부에서 정책적인 지원으로 농민이 마음놓고 농사를 짓게 해야하지 않을까? 학교에 다니는 우리도 농민에게 관심을 보이면서 농민을 생각하는 마음을 항상 가져야 하겠다. 농민이 생각하는 쌀 한 톨에 대해서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우리가 대학교정을 한가롭게 거닐고 있을때에도 농민은 쌀 한톨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 피땀 흘려 농사를 짓는 농민의 주름살이 언제면 펴질지. 그런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창균 사회학과〉

존지받고 바른기사 쓸 수 있다 자정운동으로 언론은 거듭나라

특별법 제지, 민자당정권 타도를 외치며 분신해결한 고양양천열사의 추모대회가 있었다. 지난 11월, 저녁9시 뉴스를 보며 느꼈던 감정이 다. 열사의 추모대회에선 특별법을 끝내 제지시키겠다는 의지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하나로 결집되어 움직였다. 그러나 11일 오후9시 중앙 뉴스에는 고양양천 열사의 추모대회는 아예 언급조차 없었고 지방소식에서의 추모 대회 한두 차례 장면과 제주 토출신 국회의원 3인의 입장만을 간단히 보도했을 뿐이다. 비록 자그마한 일이지만 이러한 현상을 통해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현재 언론의

문제점을 지적해보고자 한다. 현대사회는 언론을 통하여 현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과 각종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다. 그러한 만큼 언론은 사회의 참된 모습을 가능한 한 그대로 전해 줘야 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도 골고루 수용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의 언론은 어떠한가? 각종 사회범죄는 개개인의 인간성 문제로 치부해버리고, 권력과 자본의 입장에서 국 내외적 정치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언론의 현실이다. '언론의 자유'는 정치사회적 조건과 언론기관의 경제적 토대에 좌우되는 통찰을 통해 그 확보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고 한다.

자라래. 김된다. 언론은 사회의 부정부패를 고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제는 기자들 스스로가 거액의 뇌물로 변해버린 손질을 거부하는 자정운동을 벌여 '권력과 자본'에 길들여져 갈 개개진 '화초'로서의 언론이 아니라, 이땅에서 소외된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보호하는 윤리적 의무와 아울러 현사회의 병폐, 부조리까지도 낱알이 고발할 수 있는 언론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할 것이다.

〈한일경 국문학과〉

특자의 소리

『특자의 소리』는 학내의 불합리하고 비민주적 요소의 개선을 바라는 목소리, 모순된 사회를 고발하는 가슴 뜨거운 목소리, 제대신문 기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들을 담은 독자들의 참여공간입니다. 항상 열린 지면으로 여러분의 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신의 뜻 바로 계승하자 몽쳐야만 특별법제지 가능

양용찬 열사의 분신, 투신 소식을 접했을 때, 슬픔과 함께 부끄러움이 솟아올랐다. '난 특별법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고, 또 얼마나 고민 해왔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 제주도안에 살고 있으면서, 어떤이는 '특별법' 때문에 고민하고, 특별법 제정 결사저지를 위해 자신의 몸을 바치기까지 하는데, 나는 제2차 범도민대회가 끝난 후 고민은 커녕 안일한 생활을 하며 지냈다. 8일은 서귀포로 넘어가는 학우들이 꽤 많았다. 많은 전경과 백골단이 있었고, 이들이 계속 우리의 시가행진을 가로막았지만, 학우들은 몽쳐서 뚫고 나갔다. 넘어지는 학우들도 있었고, 곤봉과 방패로 맞는 학우들도 있었다. 5월의 강경대열사가 쇄

지고, '동명백화점' 앞으로 뛰면서 울화가 치밀어 올랐다. 10일에는 오후 3시경부터 제주시 현대약국앞에서 모이기로 했었는데, 좀 늦게 도착해 보니 전경과 백골단만이 우리를 맞이했다. 행사는 무산된 것 같았다. 11일 양용찬 열사 장례식 날 추모대회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이번 일련의 행사에 참가하면서 계속 느낀 것은

사람들 — 조매경 양호사

“약품부족·이용자 인식등 개선돼야”

본관 3층 후미진 곳에 위치한 양호실에서 근무하는 양호사의 웃음은 몸에 이상이 있어 아픔을 호소하러 오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그 어떤 약보다도 효과가 좋은 만큼 밝고 포근하다. 8천 이라인들의 건강을 담당하는 양호실에는 조매경·윤정희 간호사와 박화영 약사들 모두 3명이 근무하고 있다. 조매경 간호사는 86년부터 우리학교에 근무했고 윤정희 간호사는 90년부터, 박화영 약사는 올해부터 근무를 시작했다. 그중 가장 오랫동안 우리학교에서 몸담아 온 조매경 간호사와 몇마디 얘기를 나눠 보았다. 조매경 간호사는 근무상 어려운 점에 대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양호실에 많은 종류의 의약품들이 구비할 수 없어 양호실을 찾는 학생이나 교직원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기성회의 많은 지원을 호소하며 아울러 재정상의 어려움이 마치 자신의 잘못인양 미안함을 금치 못해 한다. “양호실에 구비되어 있



는 약 중에는 규정상 1회 용 반창고 진통제 등의 지급 가능한 약과 연고류들과 같이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약이 있는데도 간혹 이용자들은 그 규정을 모르고 왜 약을 줄 수 없느냐고 따질 때면 무척 난처해진다”고 말하면서 약지급 규정에 대한 이용자들의 이해를 바라기도. 게다가 어떤 이용자들이 양호실에서 약을 받고 갈 때 대개 환자가 직접 찾아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 어떤 약을 가져오라고 하는 등 심지어는 환자가 직접 약을 선정하는 경우 또한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하고는 약의 올바른 복용을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찾아 주기를 신신당부한다. 그녀에 따르면 양호실 이용자수는 6월초 3층으로 이전하기 전 1층에 있을 때에는 하루 평균 30~40여명이 양호실을 찾았는데 3층으로 이전하고 난 이후에는 양호실을 이용하기가 불편해져서인지 양호실을 찾는 이가 예전의 반 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내년쯤 지금 신축중인 학생회관이 완공돼 그 쪽으로 옮기면 지금보다 넓은 장소에서 많은 이용자들의 말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며, 신축학생회관으로 이전하면 양호실 내에 이용자들이 상담할 수 있는 상담실을 설치해 제대인들의 건강에 대해 상담을 하거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양호실 이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개선방향을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좀 더 나은 양호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다. 아울러 “우리학교 학생들이 성(性)에 관한 지식의 성숙도가 많이 부족하다”며 나름대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피력한다. 【양】

‘몽쳐야 산다’는 것이다. 그리고 양용찬 열사는 죽은 것이 아니라, ‘특별법제지’라

는 ‘이름으로 우리들의 가슴 속에 함께 있다가 사실이었 다. 그리고 투쟁의 현장에서

항상 부활하여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다. 〈김지영 식품영양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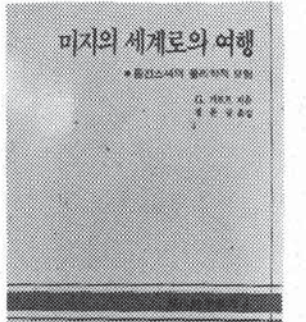
권하고 싶은 책 미지의 세계로의 여행 물리학세계 흥미있게 서술

일반인들은 자연과학 분야의 서적을 접한다는 것 자체를 매우 따분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과학하는 사람들도 자기영역을 한 치라도 벗어나면 함구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도래한 것 같다. 이는 과학이 가진 속성 탓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극히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 깊게 파고들어야만 전문화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성질의 과학서적을 쉽고 흥미롭게 읽는다는 것은 기대하기 힘든 일로 생각되지만 이 책은 위대한 과학자 George Gamow가 그의 비범한 필치와 절묘한 기술력으로 이해하기 힘든 현대물리학의 핵심적인 문제들을 다루어 일반 대중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생각된다. 현대물리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한번 읽고는 만족하지 못하고 두번 세번 읽게 되는 책이므로 등화기전의 계절이 되기를 감추기 전에 권하고 싶은 책중의 하나이다.

저자 G.Gamow는 1904년 러시아 출생으로 1940년 미

국으로 귀화했다. 그는 원자모형을 제안했던 Bohr와 전자핵을 발견한 Rutherford의 문하생으로 물리학을 비롯한 우주론, 생물학 등의 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남겼으며, 특히 과학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 책은 여러번 출판사일을 당한 후 우여곡절 끝에 캠퍼지 대학 출판부에서 발행하는 『Discovery』라는 대중과학지에 실린 (Mr. Tompkins in Wonderland)을 시작으로 20만 이상이나 거를 발행되면서 수정 보완된 것으로서, 과학도가 아닌 비전문가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대성이론, 공간의 곡률, 빛의 팽창하는 우주에 대한 개념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썼다. 치밀한 과학적 논리를 통하여 공상과학 소설이 아니면서도 그 이상의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한다.

한 관념은 곧 습관화 된다. 그래서 이러한 관념위에 정립된 외부세계에 대한 개념만이 정당한 유일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고, 이러한 개념에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여하한 새로운 아이디어도 오히려 모순된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 책은 바로 이러한 잘못된 인식의 모순을 해결해 주는 미지의 세계로 독자들을 여행시켜 줄 것이다. 여기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일독에 견줄 바 못되므로 사족에 지나지 않겠으나 현대과학에 관심이 많은 평범한 은행원인 주인공 Mr. Thomkins가 꿈속에서 겪은 신세계의 신기한 물리학적 현상들을 어떤 노교수가 이해하기 쉬운 평범한 내용으로 설명해 준다. 그 중에서 이 책의 끝맺음에 있는 대화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역시 이 글도 쓸일이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새로운 입자들을 발견하려고 그렇게 피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그런 노력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 즉, 그것



이 거대한 은하계이건, 또는 극미의 박테리아이건 또는 소립자이건 간에 모조리 이해하려는 인간정신의 도전이라는 것일세. 그런 노력은 재미있고 소중한 것이리라.” “그렇다면 과학의 발전은 더 안전하거나 더 편안한 인간생활을 가져다 준다든지 하는 현실적인 목적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것인가?” “물론 기여를 하지.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2차적인 목적에 지나지 않는다. 음악의 목적이 나팔수에게 이든 아침 잠자는 병사들에게 이상시키는 방법을 가르치는 데 있다고 자네는 생각하느냐? 또는 병사들이 전선에 뛰어 드는 명령을 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속담에 호기심은 고양이를 죽인다고 하지만 나는 호기심은 과학자를 만든다 라고 말하고 싶네.” 김경연 전자공학과 전임강사



○...한반도는 우리 땅

지난 7월25일 한미 국방부 당국자 간에 가조인된 '전시점수국 지원협정'(WHNS)이 금년 11월20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회의에서의 공식체결과 국회비준동의과정만을 남겨 두고 있는데, 이는 미군이 전시를 대비해 필요시 우리나라의 군사도로, 항만등 물적자원은 물론 인적자원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는 협정이니, 곧 남의 땅에 들어와서 주인노릇 하겠다는 처사라. 그간 미군 군화발에 짓이겨 살아온 과거만도 서럽고 역울한데, 한편에서 '쌀수입 개방하라'면서 전시국 지원협정을 강요하고 있으니, 도대체 정부는 무얼 믿고 손가락만 입에 물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음인지 분통터질 일. ○...신학대학 신실(?) 정문앞 로터리에 커다란 나무십자가가 꽂혀 있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아케 하고 있는데 일본측, 우리학교 한 기독교 동

아리에서 학생회관 앞에 십자가를 설치하겠다는 것을 총학생회에서 달렸더니 결국은 정문앞 로터리에 세워 놓은 것이라고

중요의 자유가 보장된 사회에서 맹신을 하든, 광신을 하든 상관할 바아 없지만 신학대학도 아닌 이 학교에 있는 다른 종교신자도 있고 무신론자도 있는데 공공용지이다 특정종교의 상징물을 합부로 설치해도 되는 것인지? ○...백골단 전성시대 평화시위를 하겠다는 학우들의 강렬한 의지도도 불구하고, 보았다 하면 무조건 백골단이 달려와 연행해 가니, 역시 포도청의 노예근성 개버릇은 못

한반도는 우리 땅

버리는 듯. 지난 11월14일 시내에서 있었던 ○ 양용찬 열사 뜻 계승 특별법 제지, 노태우 정권 퇴진을 위한 청년이라 실천대회에서 무려 13명의 학우가 무차별 연행됐고 많은 학우들이 방패와 방망이등에 맞아 부상을 입었는데, 그들의 목적이 대열을 해산시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무차별 연행에 폭행까지 서슴치 않고 있으니 제2의

강경대 김귀정 열사가 생겨나지 않을까 두렵소이다.

○...또 많은 것이 죄가 되지는 않겠지만 근래들어 학내에 학우들끼리 위화감을 조성하는 일이 급증.

자기문전자의 전국적인 증가추세에 따라 연세부턴서 우리학교에도 자가용이나 오토바이로 등교하는 학우들이 급증. 주차장에서도 어지럽히고 경적도 합부로 마구 울려대는가 하면 학교내에서 경주까지 벌여 정신상태까지 의심케하는 일도 있어.

○...대학생으로서 자가를 타고 등교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일텐데 유치한 행태로 같은 학생들끼리 빈부격차에 따른 위화감을 조성한 대서아...

○...너저분한 선거캠프들이 학우들은 요즘 다니는 길목마다 기분이 점점 나빠지고

선거 끝난지 며칠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선거 홍보물들이 계간 여기저기에 붙어있는 것은 물론 각 후보자들의 선전문구와 선전물들이 여기저기 널려있어.

그간 투자의 비용과 시간이 아까워서 최소로 하고 그대로 방치해 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선거마무리의 사소한 행동조차 실행치 못하면서 어찌 학생회를 이끌어 나가려는지.

SAM YANG GROUP



강의실에선 칸트의 철학에 심취한다 그러나 수업뒤의 탈춤 동아리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먼저 우리의 것을 소중히 여기며 지켜나가는 젊은이—
삼양그룹은 이런 젊은이들에게 뜨거운 격려를 보냅니다.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개척자 정신—
이것이 바로 삼양그룹이 지난 67년간
변함없이 지켜온 기업정신입니다.
1924년 아령에 산업의 씨앗을 뿌린 이후
섬유, 식품, 사료, 기계, 화학부문에서 기술의 문을 연
삼양의 개척정신은 이제 새롭게 고분자, 의료용소재
및 제약, 발효공업 등 첨단산업에 도전합니다.
젊은이들의 뜨거운 가슴, 진지한 눈빛속에
내일을 아끼려는 힘이 있습니다.
그들의 진취적인 기상처럼 삼양그룹은
풍요로운 내일을 위하여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삼양

●주식회사삼양사(株, 三星, 精製, 化學) ●삼양중공업주식회사 ●선일포도당주식회사 ●삼양식품화학주식회사
●삼양제분주식회사 ●신한제분주식회사 ●디원산업(주) ●삼양중공업연구소 ●양정회 ●주당합회